

[라운드테이블]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장소: 일터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

<목차>

[사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표 1]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2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표 2]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6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발표 3]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12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4]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19
박다해(한겨레신문 기자)

[발표 1]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¹⁾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안전한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그 대안과 조건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발제를 작성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범죄를 지칭할 때 ‘칼부림’처럼 특정 도구에 한정하여 호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범죄가 가진 맥락과 사회적 배경이 축소되고, (사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건이 비가시화 되기도 한다. 하여 상담소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연달아 발생한 ‘칼부림’사건을 흉기난동 사건/범죄로 지칭하고자 한다.

- 2023년 흉기난동 사건과 정부 대응 일지

07.21. 신림역 일대, A(남)가 남성 4명을 흉기로 공격하여 1명 사망
08.03. 서현역 인근 백화점, B(남)가 차량 돌진 후 흉기 휘둘러 2명 사망 12명 중경상
08.03. 윤석열 대통령,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할 것’을 지시함.
08.04. 경찰청장,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별치안활동’ 선포함.
08.05. 경찰청,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00여명과 장갑차를 전국 도심 곳곳에 배치함
08.11.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형)’ 신설하는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함.
08.17. 관악산 공원, C(남)가 출근중인 여성을 너클로 폭행·강간하여 사망함.
08.19. 지하철 홍대입구~합정역 구간, D(남)가 남성 2명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발생함.
08.23.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범입원제’ 도입방안 언급함.
08.24. 법무부, 살인예고 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 밝힘.
08.29.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함.
08.31. 광명역, E(남)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는 남성에게 철제공구로 공격하여 2명 부상
09.04. 양산시 버스정류장, F(남)가 여성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찌르고 달아남.
10.01. 서울시 서초구 산책로, G(남/미성년자)가 중학생 2명을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러 1명 부상.

2023년 7월 21일과 8월 3일, 특정 지역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후, 8월 4일 정부와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주요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이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엄벌을 예고했지만,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8월 17일, 일면식 없는 남성이 공원(이하 공원 사건)에서 여성을 강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메시지를 담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사형집행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10월까지 흉기난동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1) 발제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류버리, 이소희, 정서진, 최원진이 함께 논의하고 최원진 활동가가 대표 작성함.

흉기난동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의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은 이전과는 구분되는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 첫째, 면식범이 아니며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직·간접적 원한이나 갈등이 없고 셋째, 불특정 대상을 향한 ‘무차별 테러 형’ 범죄라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모방범죄 및 범죄예고(미수)가 발생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2023년 흉기난동 사건을 목도하며 갖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과 탱크는 ‘남성화된 공권력’의 과시다.

흉기난동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올해 여름, 광화문과 강남역 등 도심 곳곳에는 낮선 풍경이 펼쳐졌다. 장갑차와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가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 사이사이 곳곳에 배치되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검문하고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죄는 멈췄고 우리는 안전해졌을까?

안전은 사회적 감각이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감각, 지금 여기, 다수의 좋은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이 있다면 내가 즉각 느낄 감각은 공포와 불안이지 안전은 아니다.

지난 8월 24일, 공원 살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한 시민 A씨는 “이미 공포와 불안은 여성의 일상에 스며들어 외진 곳은 피하고 서로에게 조심하게 들어가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밤, 낮, 출근길, 화장실, 집 앞까지 점점 갈 수 있는 곳과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이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말할 때, 국가는 폭력을 더 강한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남성화된 공권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오히려 내 주변의 누군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두려움, 공원과 광장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증폭한다. 증폭된 불안은 결국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서 피해야 하는, 각자도생으로 귀결된다. 우리를 다시 개인으로, 집으로, 개별화 된 곳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공간의 제한과 삶의 축소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여성의 안전은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2023년의 흉기난동이 이전과 가장 구분되는 양상은 바로, 무차별 테러의 대상에 ‘성인/비장애/남성’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 뿐 아니라 기사 댓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람과 두려움을 표시한 댓글이 넘쳐났다. “한국사회가 왜, 언제부터, 어떻게 개인의 치안이 위험한 사회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2023년 이전까지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물론 각자의 위치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떤 위치에서 누구의 감각을 ‘보편’으로 여겼느냐는 것이다. 2023년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언론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들짝’은 당연하지만 낮선 반응²⁾이었다.

2) 2023년 이전 발생한 ‘비면식범에 의한 약자 대상 범죄’와의 사회적 온도차를 말하는 것임. 2023년 ‘흉기난동’ 사건의 경중을 논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함.

여성의 안전은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상의 여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가 범죄로 이어졌음을 직시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국가는 여성안전을 주요현안으로 삼고 대안을 세우기보다 일부 여성들의 '예민함'으로 치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가능한 쟁점으로, 정치적 편가르기와 표를 위한 혐오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 소속의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이 예산으로) 안심골목길 사업을 증액했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폐지를 의정활동 성과로 홍보했다. 여성안전 정책은 특혜이며 여성혐오 범죄 대책은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역차별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현실정치의 언어로 선동한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안전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특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폄하하고 젠더 갈라치기로 인식하는 정치권의 행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여성의 안전이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감각'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해자에게 마이크를 주는 언론

공원 사건 가해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진술은 언론을 통해 속보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화되었다. 또한 "강간하고 싶어 범행했다." 등 가해자의 말과 서사는 이후에도 여과 없이 기사에 담겼다. 다수 언론사들의 이와 같은 행보는 세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언론이 기사의 공익적 가치와 책임보다는 속보 경쟁에 몰두하여 가해자의 서사를 부각시킨다. 둘째, 언론과 포털을 통해 범죄 행위를 자극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한 기사(헤드라인, 관련 일러스트 포함)가 일상적으로 전시되면서, 범죄가 가습으로 소비·휘발되는 현상을 부추긴다. 이는 범죄를 모방하고, 언론을 자신의 스피커로 삼는 인셀³⁾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흉기난동이 발생한 7월 21일부터 약 한달 간 디시인사이드⁴⁾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469건 게시되었다. (223명 검거, 22명 구속) 특히 2023년 7월 24일과 7월 25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00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은 수사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셋째, 가해자의 신상·얼굴 공개를 치트키처럼 사용하는 보도 행태는 가해자 처벌에 여론을 집중시킨다. 마치 엄벌이 범죄 해결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3) Incel.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로,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남성들을 일컫는다. 인셀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확산되기도 한다. 자신을 거절한 여성을 혐오하고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인셀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경향신문, <캐나다 차량돌진 용의자는 '인셀'이었다> 2018.04.26.

4) dcinside. 줄여서 DC로 불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가해자의 진술과 범죄 행태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기사화 될 수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말과 개인 이력, 범죄 행위외의 정보가 전무한 것에 있다. 언론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등 고민과 질문이 필요하다.

넷째, 지워지는 여성, 탈락되는 범죄

뉴스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BIGKinds)'에서 '칼부림'을 검색하면, 전국일간지를 기준으로 7/1~ 10/25일까지 총 1,222건(미수, 예고 포함)의 관련 기사가 확인된다. 중복 기사를 감안 하더라도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거나 보도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묻지마'에서 '이상동기'범죄라는 새로운 명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정신질환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은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해자를 개별·특수화하고 숨어내어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에 몰두할 때, 지워지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다. 범죄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배경, 맥락, 사회적 원인 등을 삭제하고 찾을 수 있는 예방책은 없다.

한국사회의 안전은 장갑차와 총, 무장경찰이 아니라, 2023년의 흉기난동 범죄를 어떻게 진단하고 명명하는가에 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특정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명명하고, 개인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범죄라는 인식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은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만들고, 그 통계는 다시 법에 반영된다. 우리에게 흉기난동 범죄를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적절한 질문들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민우회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되듯 발생했는가?”, “해당 범죄를 가습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쟁하듯 예고 글을 게시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일본의 ‘도리마’⁵⁾ 범죄와 일본 정부의 대응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없는가?”, “언론은 어떤 정보를 기사화해야 하는가?”, “몇몇 사회·범죄·심리학자들의 의견처럼 청년세대의 고립·단절이 원인이라면, 젠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단절감을 사회적 공격으로 분출하는 것은 왜 대부분 남성인가?)”

5) 일본의 '도리모노 (通物 とほりもの)'라는 명사에서 유래했으며, 직역하면 '길거리 악마'라는 뜻이다. 2008년 일본 아키타바라 지역에서 발생한 대량 흉기 살상 사건 이후 연달아 발생한 무차별 살인을 일컫는 말이다. - 프레시안, <'도리마 공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009.08.27.

[발표 2]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민우회 라운드테이블]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

추지현(chooja2@snu.ac.kr)

2023.10.26.

1. 출발

-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인가?
 - 다중살인? 흥기 사용? 불특정 다수 대상? “연달아 발생”?
 - “묻지마 범죄”라는 명명과 진단의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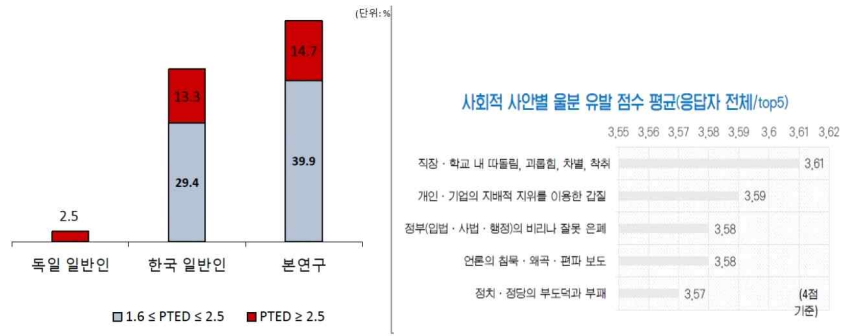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신을 정신감정한 심리분석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신의 정신 상태가 와해됐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신의 지능지수(IQ)는 경계선 지능인 75 수준이었고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직 상태가 장기화하자 자기 고립에 빠져 분노 폭발 행위가 발현됐다는 것이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스토킹 집단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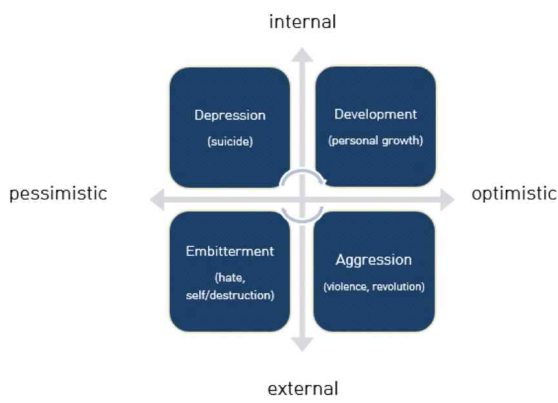
- 몸(신경 생리학적 문제, 정신, 심리 등)과 사회적인 것의 상호작용
- 답답하고 분한 상태의 복합적 감정
- 비방, 모욕, 배제, 차별을 수반하는 사회, 정치적 부정의와 부정적 생애 경험에서 비롯
- 극심한 울분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파괴적 행위로 이어짐

시각장애, 직장에서의 냉대, 나를 이용만 하는 사장, 세상에 복수, 여의도 광장 질주
직장내 따돌림과 실직, 빚, 우울,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회사 다녔던 시절’
증권전문가의 생활고, 피해의식, 길가던 여성 5명 상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 ‘돈 없는 촌놈’, 입장 거부, 무시
‘너한테는 안팔아’, 폐지 정리에 사용하던 칼로 식당 주인 상해



유명순(2018), 유명순(2019)

- 사회적 조건 이외에도 이에 대한 인지 방식의 영향
- 상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상황에 대한 통제 방식에 따라 상이한 발현



Znoi, H., 2011

2. 젠더의 작동

누구의 울분? 어디로 향하는가? left-re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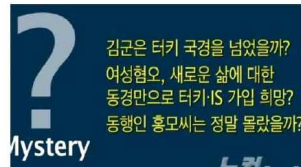
(1) 주변부 남성성(Connell, 1995; Dekeseredy & Schwartz, 2010)

- 헤게모니적 남성성(권위, 통제, 독립성, 공격성, 과시 등)의 수행과 “진정한 남자” → 호모포비아와 여성의 교환
-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실현할 수단의 부재와 인정 욕구
 - 공적 영역에서의 인정 부재
 - 하층 계층 청소년들의 길거리 문화: 강간, 절도, “사나이”
- 위협과 금기 위반을 감수, 과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남성성
- 남성간 폭력 대부분은 성적 평판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기인(Miller & Mullin, 2006)
 - 예. 살인: “남성은 상황 통제의 욕구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상황 통제가 어려울 때”



“가해자가 음란동영상 시청, 성매수 등 성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 심리분석 결과 ‘여성에 대한 열등감, 부적절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한 ‘가치관과 여성 편력’을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의 정황과 종합해서 볼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

- 연애, 취업, 결혼의 젠더화된 트랙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신자유주의 경쟁 속에서 남성들의 불안이 여성혐오로 전이(배은경, 2015; 이현재, 2017)
- ‘헬조선’, ‘흙수저’, 자학(‘우린 아마 안될거야’)
- 실패와 좌절을 소수자에 귀인하는 변질된 잉여 문화(김수아, 2016)



→ 어떤 시민을 만들 것인가?

"성폭행 그 중학생, 나는 우는데 웃더라" 피해 40대 여성 충격 증언[영상]

김송이 기자별 스토리 · 1주



3월 오전 2시께 40대 여성을 태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중남 논산시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 서고 있다. (MBC 걸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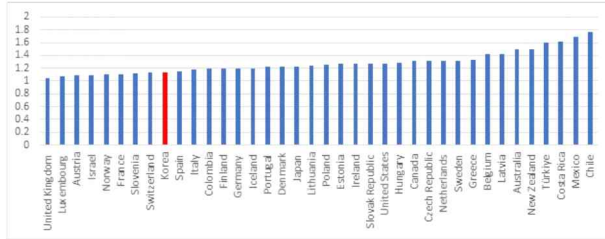
(2) 여성의 율분의 내현화

■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우울

- 사회 참여 기회 배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Nazroo et al., 1997) → 타자의 성적, 감정적 기대에 부응해야하는 여성의 삶
- 피학대 경험과 낮은 자존감, 주제적 협상 능력 소진, 자기 비난(Goldberg, 2006)
- 모성이데올로기
-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기 위한 침묵과 스스로의 욕망 부정 (Nolen-Hoeksema, 2001) 등

■ 페미니즘 백래쉬와 피로도

3.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



국가	대형범죄율(%)	불안 건수(count)
Luxembourg	6.0	1
Colombia	7.6	14,58
Belgium	8.8	126
Chile	9.3	708
Costa Rica	9.5	588
Mexico	11.3	35,65
Estonia	13.4	26
Israel	13.6	173
Turkey	20.3	2,136
Sweden	21.2	113
United States	21.7	3,204
Canada	22.2	76
New Zealand	23.6	129
Australia	23.8	190
United Kingdom	25.0	775
Poland	25.9	273
Lithuania	33.6	72
France	31.1	730
Ireland	31.6	42
Denmark	31.5	47
Netherlands	32.5	114
Spain	33.4	290
Finland	34.6	81
Hungary	34.7	75
Slovak Republic	35.7	49
Greece	37.1	89
Iceland	39.3	60
Portugal	42.0	81
Japan	47.0	285
South Korea	47.4	270
Germany	48.5	695
Iceland	50.0	2
Norway	53.2	29
Czech Republic	57.4	47
Switzerland	59.3	52
Austria	61.5	65
Latvia	63.2	37
Slovenia	66.7	9

출처: UNODC(2021), Victims of international homicide
<https://dataandmaps.un.org/data-international-homicide-vict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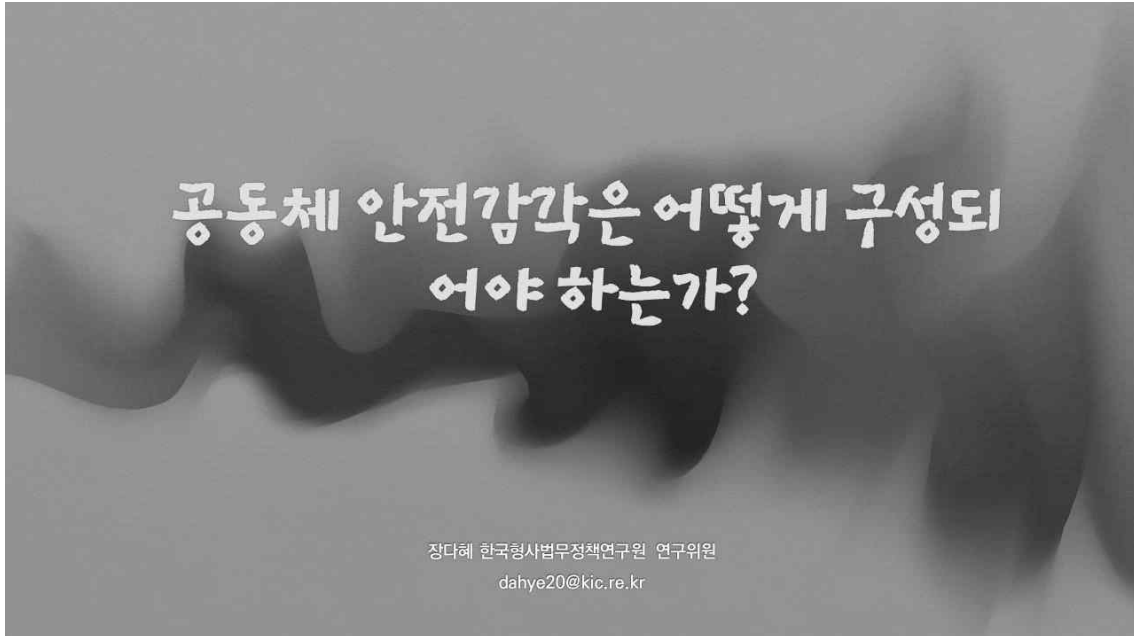
- 시·공간 사용을 통제하는 젠더화된 사회화 과정, 여성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미디어
- 성적 피해의 해악
- 피해 발생 후 대처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취약성 등
- 개인적 수준(계층, 주거지, 미디어 접촉 형태 등), 지역 수준(주거지의 무질서, 이웃과의 관계), 국가 수준(사법부 및 사회에 대한 신뢰, 법 문화)
- 실제 범죄 발생율과 강한 상관관계(누구의 관점인가?)

4. 고민

- 젠더의 작동 방식은 피해자-가해자, 여성-남성 관계에 국한되지 않음
 예. 부산 서면 “돌러차기” 사건, “피해자가 여자인지 몰랐다”
 가해자 개인의 범행 의도로 여성혐오를 환원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젠더 관점에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남성성의 변화
- 하지만 모든 율분이 젠더화 된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단언할 수 없음
- 여성들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변화시켜야하는 요인도 하나가 아님
- 장기적이고 지난한 과정 (“실효성 있는”, “극도의 긴장을 완화할 즉각적 장치”의 요구와 지난 20년의 공과) 페미니스트 번아웃

[발표 3]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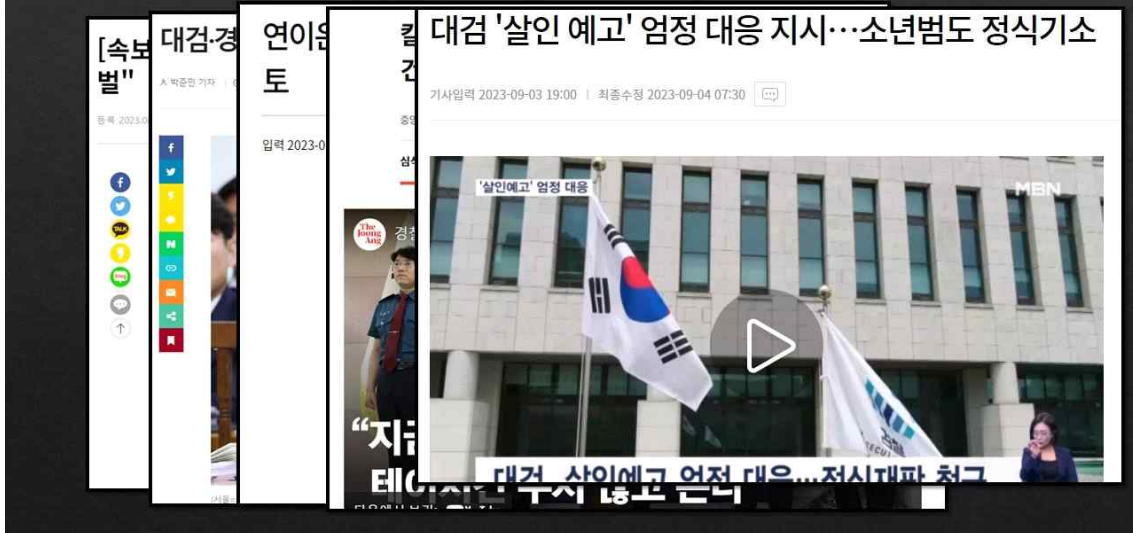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묻지마 칼부림, 무차별 칼부림..



무차별적 칼부림 범죄 대응



‘묻지마’, ‘무차별’, ‘이상동기 혹은 동기 없는’ 범죄라는 명명

패턴이 없음

“식별가능한 양상없이
우연히 발생”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무의미함

“아무런 이유없이 발생함”
“무고한 피해자”

확산됨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함”

위험의 민주화 (Best,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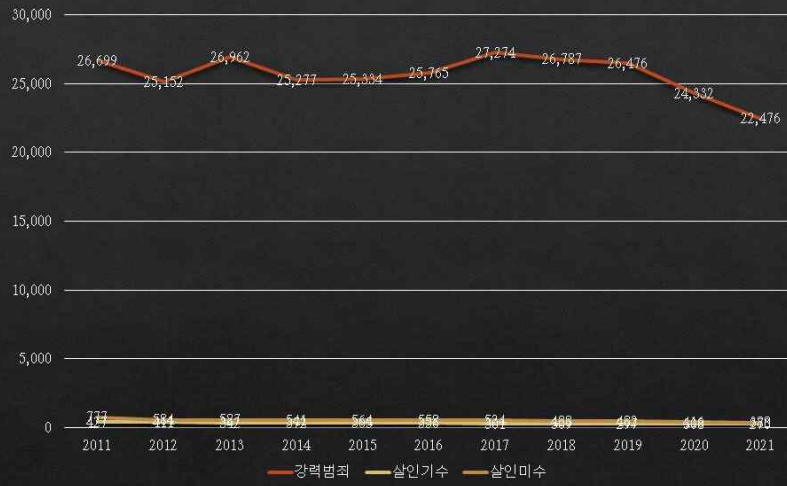
- 모든 개인들은 공격받을 위협에 처해지며, 동일한 피해위험에 처해 있음
- 모든 개인들이 잠재적 가해자이며, 공격할 가능성 역시 동등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특정한 상이 구성됨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 등)

과연 범죄의 발생이나 피해의 양상은 없을까?

◇ 범죄의 성별화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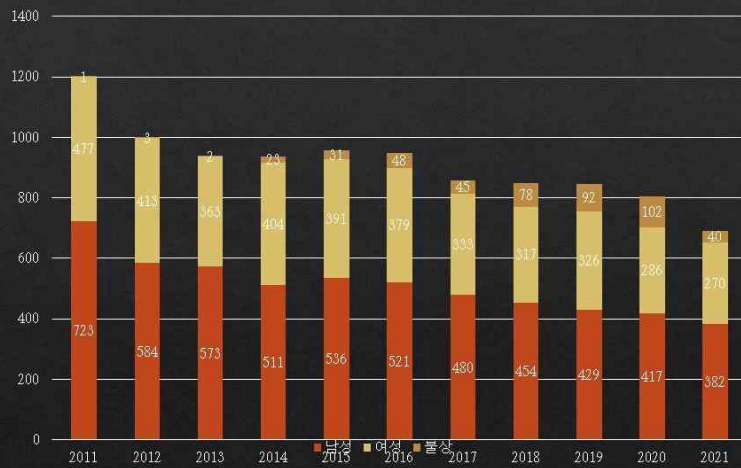
- 살인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2021년 살인기수 총 307명 중 남성 227명으로 매년 70~80% 남성이 자치)이지만, 피해자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살인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친족이 가장 높은 비율(매년 약 30%)을 차지하며, 모르는 사람(매년 약 15%), 친구와 애인(매년 약 10~15%, 애인이 더 높은 비율임)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살인 피해자의 경우 가족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사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강력범죄 및 살인(기수,미수) 발생건수 (2011~2021)



(자료: 범죄통계)

살인 피해자 현황 (2011~2021)



(자료: 범죄분석)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라는 명명의 효과

➤ 폭력범죄 발생의 사회적 구조를 비가시화

- 타인에 대한 폭력 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존재
- 폭력범죄 발생과 피해의 양상이 빈곤과 연관, 빈곤을 야기하는 인종 등과 같은 차별적 구조에 대한 관심
- 페미니즘 연구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성별화된 구조에서 찾음
- 그러나 묻지마, 무차별 범죄라는 명명과 범주화는 사회구조적 원인과 대응에 대한 관심을 지움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라는 명명의 효과

➤ 두려움의 강화

- 아무런 이유없이 누구나 공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 막연하고 모호한 두려움의 확산과 안전에 대한 욕구
- 가해자 내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격리 요구
- 개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스템 수용이 유일한 대안 (사형이나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지속적 요구)

사회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별화된 대응

사회구조적 폭력인 젠더폭력 대응과 실패

-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의 성별화된 구조적 맥락에 기초 (가부장적 성별구조가 여성 다수를 피해자화하며, 그 피해를 사소화)
- 젠더폭력 피해자를 가시화하고 2차, 3차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문제시하며,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
-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사회구조로 발생한 위협으로 피해를 받은 개별 피해자에게 집중 (피해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심리적 영향(PTSD) 강조)
- 개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개정, 국가에 의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의 과정에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국가기관, 정신건강, 법집행 목표에 집중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치료,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치료, 전문가 주도의 피해자 지원 등)

사회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별화된 대응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분리 중심의 안전정책

- 개별 가해자의 범죄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대책 고안
- 각종 '여성안심'정책의 개발과 확산: 홀로 있는 여성은 범죄 대상이 된다는 가정 하에 동행서비스,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등등
- 안전한 공간 구성의 방향은 여성 전용 공간을 구분하고 여성을 외부와 분리하는 것이나, 이는 결국 그 외의 공간은 여성에게 위험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두려움을 강화할 뿐 (성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성차별적인 구조를 재생산)
- 실제 여성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친족, 애인 등에 의한 폭력 대응은 실패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불평등한 성별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대안

- 범죄예방과 안전은 드라마틱한 방안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의 요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한 공간을 축소시킬 뿐이다
-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 평등과 상호존중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빈곤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해나가는 것이 필요

Thank You !

[발표 4]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박다해(한겨레신문 기자)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박다해
(한겨레신문)

질문들

- '칼부림' 범죄는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 기자로서 현장을 보도하면서 실제로 '칼부림' 범죄의 수가 과거보다 더 많아졌는가?
- 그동안 언론이 '칼부림' 범죄를 다뤄온 방식은 어떠하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
- 언론이 젠더 관점에서 '칼부림' 범죄를 보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들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한 결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두 신문 모두 남성편향적인 프레임을 드러낸다.
- 가해자 중심의 서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 및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 남성 필자의 가부장적 시선들이 기사에 내재해 있다.
- 서로 다른 가치와 정치성을 지향하는 신문들 간에 젠더 담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제작 관행과 남성 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뉴스가 제작되기 때문이다.

김훈순(2004) 언론의 젠더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7, 63~91

연구들

- 가정폭력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뉴스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남성 가해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는 양상이 있다.
- 도덕적 비난만큼이나 빈번하게 보여지는 뉴스의 양상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일탈적 병리현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다.

최현주(2009),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젠더와 문화> 제2권 1호

연구들

- 여성의 행실에 책임을 전가할 여지가 없는 이번 강호순 사이코패스 사건에서는 희생자 비난과 같은 젠더 편향적인 시선의 내재화가 아닌 젠더 관점의 부재를 통해 이미 확립된 남성중심적 성 질서를 그대로 수용함을 보여줬다.
- 범죄의 원인에 대한 프레임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으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이는 성적 욕망의 극치를 살해로 마무리한 강호순을 사이코패스라는 개인 심리적 결함으로만 바라보고 왜 특정한 반사회성이 하필이면 여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 살인 충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고찰, 우리 사회 성의식의 병리현상에 대한 고찰은 부재했다.

최현주(2010), 사이코패스의 범죄보도 젠더담론 : 강호순 사건, 사회과학연구 제21권 1호

연구들

- 대부분의 뉴스 프레임은 주류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 사건 중심의 범죄 보도가 많이 이뤄진다.

최현주(2010), 사이코패스의 범죄보도 젠더담론 : 강호순 사건, 사회과학연구 제21권 1호

연구들

먼저 조선일보 기사 제목의 경우, ‘강남역 묻지마 사건’, ‘강남 묻지마 살인’,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 등 해당 사건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무작위 범죄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제목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표현은 ‘조현병’,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와 같은 표현으로 피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 날 기사에서부터 제목에서 ‘여성 살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거듭해서 ‘여성혐오 범죄’, ‘여성혐오’, ‘여혐’, ‘여성’을 제목에 포함하여 명백하게 해당 사건을 젠더 이슈이자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틀짓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묻지마’ 범죄는 한겨레 기사 제목에서 단 두 차례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묻지마 범죄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각각의 제목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다’ (2016. 5. 20.)와 ‘여성혐오’ 째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결론(2016. 5. 22.)으로 나타나, 두 언론사 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볼 수 있었다.

우경조(2021), 한국사회 젠더갈등 관련 언론사 보도 프레임 분석, 인문사회21, 제12권5호

연구들

<표 2> 세 일간지의 5월 24일 보도 분량 및 기사 게재면

언론사 (보도 기사 수)	제목	기사 분량	게재 면
조선일보 (2개 기사)	기사: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	220어절	A10, 좌측 하단
	사설: '강남역 사건'의 본질은 의료 시스템 문제	184어절	A29, 하단 중앙
중앙일보 (2개 기사)	기사: 추모·반성의 자리 ... "김치녀" "한남총" 평가론 불청객들	432어절	P8, 톱기사
	사설: 묻지마? 뭘 묻지 말라는 건가?	465어절	P1, 우측 상단
한겨레 (9개 기사)	기사: 차별에 뿌리 둔 '여성혐오' 수면 위로, 2016년 한국, '여혐'과 마주하다	292어절	P1, 우측 중앙
	기사: 일베 소라넷 '여성혐오'는 돌연변이 역사	756어절	P6, 상단
	기사: 경찰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낙인, 인권침해"	303어절	P6, 좌측 하단
	기사: '강남역 10번출구 추모공간' 시청으로 임시이전	145어절	P6, 좌측 하단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 20대 국회서 탄력 받을까	275어절	P6, 우측 하단
	기사: 여성 '무시'에서 '적대'로 ... SNS와 결합해 공격성 증폭	594어절	P7, 상단
	기사: 가부장적 억압 될 받았던 2030여성 분노 더 큰 이유는	322어절	P7, 좌측 하단
	사설: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도 걸어야	228어절	P31, 우측 하단
	오피니언: 진짜 싸움	411어절	P31, 좌측 하단

우경조(2021), 한국사회 젠더갈등 관련 언론사 보도 프레임 분석, 인문사회21, 제12권5호

현황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주요 일지 2023년 기준

- 1월 31일** 0시 30분께 A씨(24),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돌연이로 얼굴 가격
- 2월 11일** 오후 5시께 A씨(20대 후반), 광주 북구 임동 한 인도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 폭행
- 5월 12일** 낮 1시 27분께 A씨(51), 대구시 달서구 전천동 거리에서 여성 B(55)씨 머리뿔뿔 맥주병으로 가격 등 무차별 폭행
- 6월 5일** 자정께 A씨(40대),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인 20대 여성 B씨 폭행
-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A씨, 의왕시 소재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 폭행
- 7월 12일** 2시 25분께 A씨(30대), 양평군 용문면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인 B씨 등 2명에게 흉기 휘둘러 부상
- 7월 16일** 오전 8시 50분께 A씨(30대), 제주시 도련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던 70대 여성 폭행. 이전 12일에도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던 80대 남성 폭행
-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조모(33)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휘두름. 20대 남성 1명 사망, 30대 남성 3명 부상
- 8월 3일** 오후 6시께 최모(23)씨, 경자 불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등이 받은 후서현역과 통로로 연결된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난동으로 총 13명 부상



반중빈기자 2023080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상황

- 4월** 최모(30)씨, 강간 목적으로 너클(금속재질 흉기) 인터넷 구매
- 8월 17일**
 - 오전 9시 55분께 최씨,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관악구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
 - 오전 11시 1분께 최씨, 신림동 공원 둘레길 입구 도착. 아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 물색(최씨가 자주 가던 장소로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장소로 지정)
 - 최씨, 둘레길 입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우고 A씨를 폭행한 후 성폭행*
 - 오전 11시 44분께 A씨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 신고로 경찰 출동
 - 오후 12시 10분 경찰, 범행 현장에서 최씨 체포
 - 18일 경찰, 최씨 구속영장 신청
 - 19일 오후 2시 30분께 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
 - 오후 3시 40분께 피해자 A씨 사망
 - 오후 9시께 구속영장 발부, 최씨 구속
 - 20일 경찰, 최씨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

*최씨, 강간미수 주장

최씨 적용 성폭력처벌법(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시 적용) 양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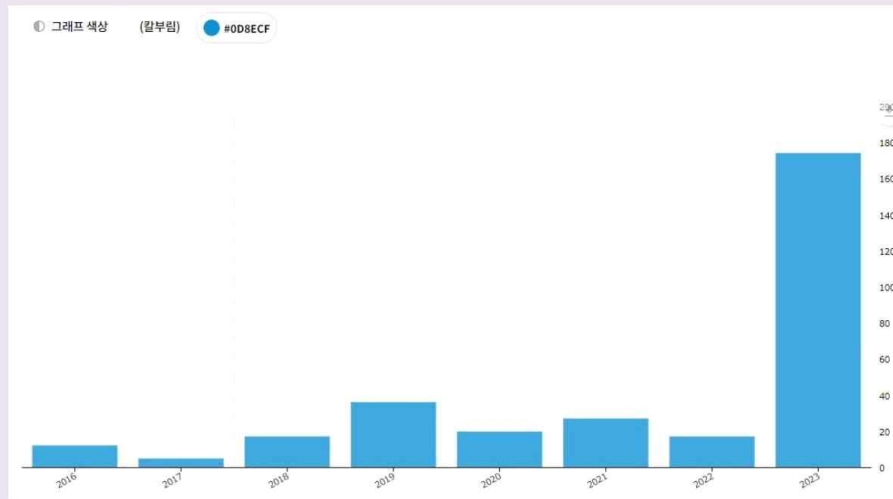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형법상 강간상해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강간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자료: 경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재윤 김영은 기자 2023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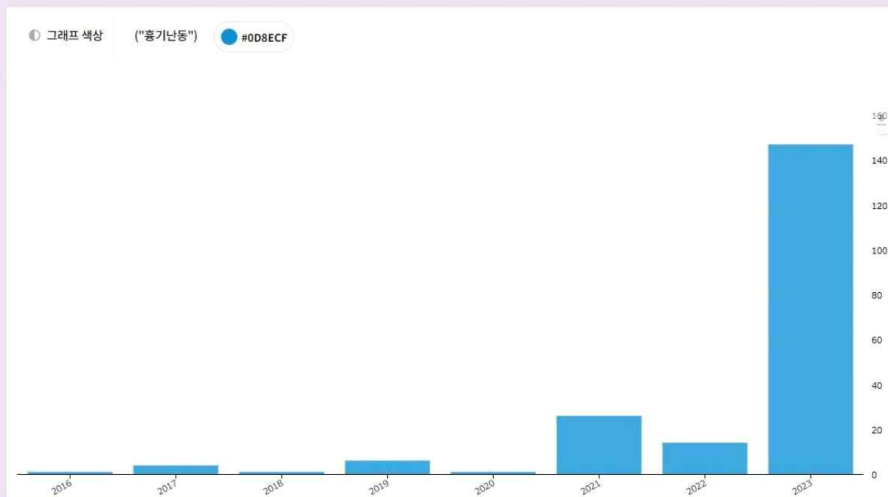
현황 (칼부림)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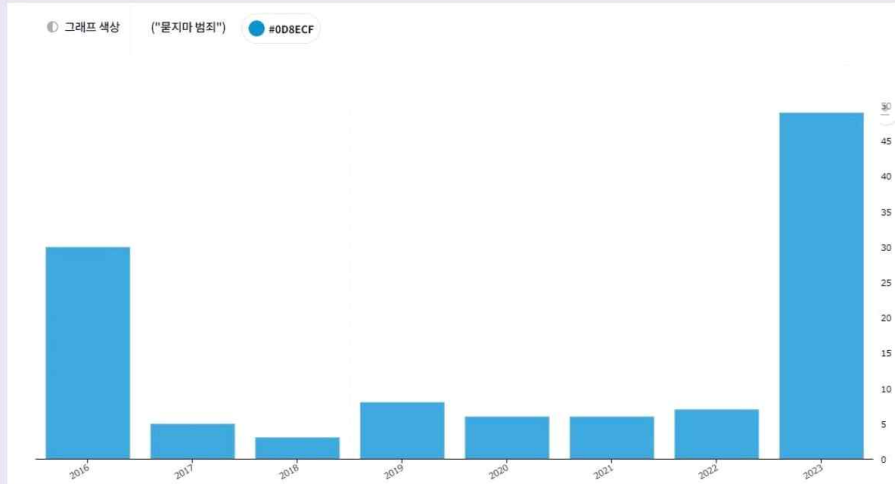
현황 (흥기난동)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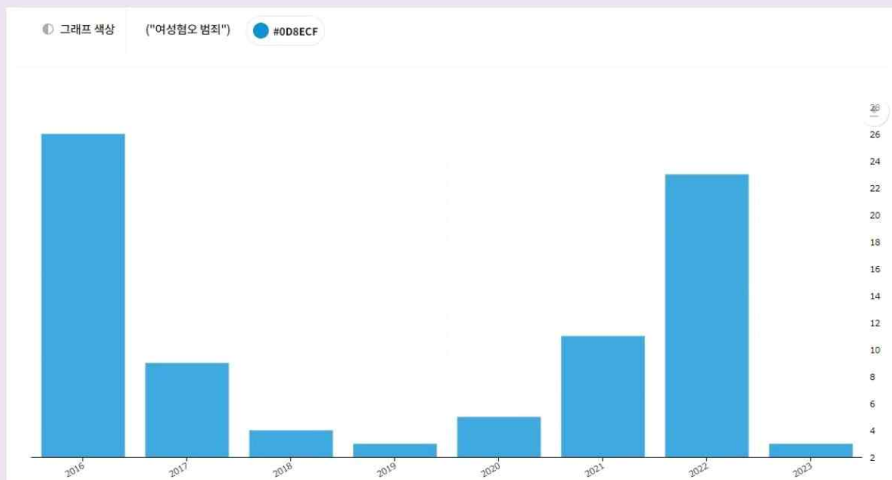
현황 (문지마범죄)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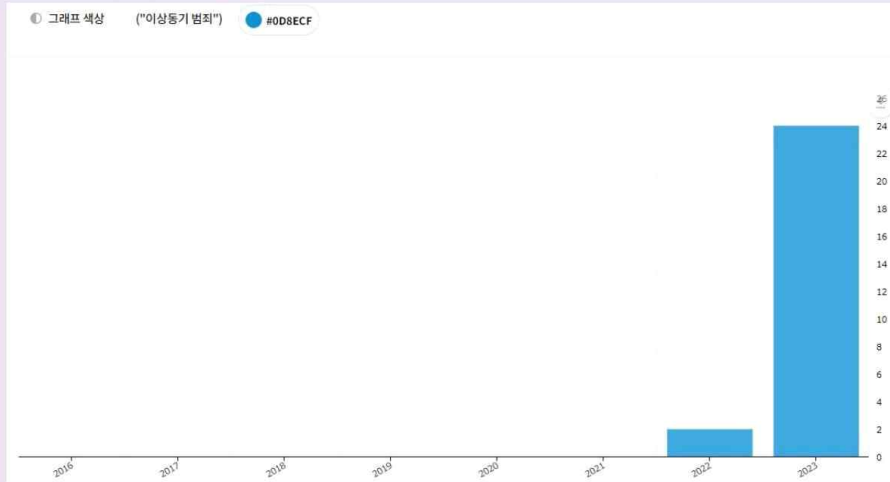
현황 (여성혐오 범죄)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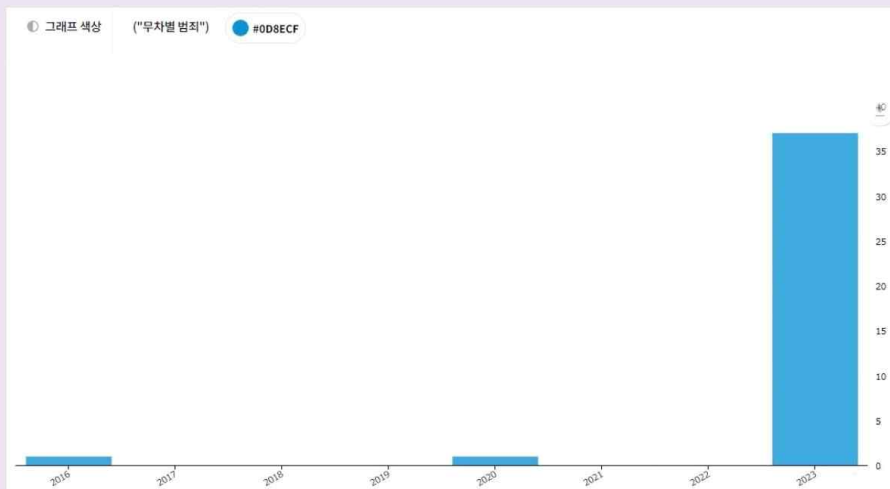
현황 (이상동기 범죄)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현황 (무차별 범죄)



<빅데이터 검색 결과>

-기간: 2016년 5월 1일~2023년 10월 26일
-언론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기사 분야: 사회

현황

통계조차 없었던 '묻지마 범죄' → '이상동기 범죄'로 부른다

(한겨레, 2022.01.19)

경찰청은 그간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두고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이 참여해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한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만들어,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할 예정이다.

현황

'무차별 범죄' 5년간 270건...발생 때만 화들짝, 대책은 '빈칸'

(한겨레, 2023.07.26)

경찰청 관계자들

"묻지마 범죄가 법률적·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 정립된 개념도 현재로서 없어 고민이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피의자 구속 기간 프로파일러가 투입돼도 증거는 어딴는지,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뭘지 등 수사와 양형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외부에 공개할 수준의 사례 분석은 쉽지 않다"

"관련 연구가 많은 미국조차 일종의 묻지마 범죄인 총기난사가 왜 근절되기 어렵겠느냐.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처럼 세분화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묻지마 범죄' 안에서도 범인의 정신질환이나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 자체로 뭉뚱그려 접근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현황

경찰, '묻지마 범죄' 개념 정립... "올해 해당 범죄 18건"

(한국일보, 2023.08.10)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이상동기 범죄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이다. 무작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사회를 향한 적대감 등 일반 대중의 상식 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범죄 동기, 범행의 폭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관이 직접 입력하는 통계원표 등 수사자료를 개선해 이상동기 범죄를 분류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범행동기, 피해자 유형 등 항목을 기존의 '우발적' '현실불만' 등 모호한 표현에서 '제3자 대상 분풀이'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언론 보도

- 누가 쓰는가
- 누가 판단하는가
- 무엇을 보고, 듣는가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등
- 발생 초기 쏟아지는 사건 중심 '스트레이트' 보도의 특성
-'여성 혐오 범죄' 여부는 '해설기사'의 영역에 가까울 수도


언론 보도

- '젠더 관점'의 보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여성혐오 범죄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함







-각 언론사의 취재보도준칙/조직문화/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데스크의 존재

-젠더 편향적이거나/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서울경제 PICK 

[단독] 신림동 공원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현재 의식불명 상태

입력 2023.08.17. 오후 7:59 · 수정 2023.08.17. 오후 8:07 기사원문

 135  260    

30대 남성, 공원에서 여성 강간·폭행
경찰, 피의자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생명 위중
경찰 특별치안활동 중 또 흉악범죄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사건 목록

☆ 12

역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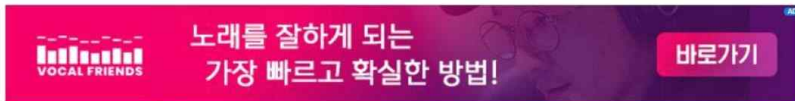
토론

편집

역사

ACL

최근 수정 시각: 2023-10-23 19:19:44



VOCAL FRIENDS 노래를 잘하게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바로가기

분류: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상위 문서: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이 문서는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내용 펼치기 · 접기\]](#)

목차

- 1. 개요
- 2. 실제로 발생한 사건
 - 2.1. 묻지마 범죄 사건
 - 2.1.1. 미수에 그친 사건
 - 2.2. 묻지마 범죄가 아닌 사건
 - 2.2.1. 미수에 그친 사건
 - 2.2.2. 흉기난동으로 오인한 사건

3. 원인 추정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집단 칼부림 혹은 범죄 예고가 올라온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이를 두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왔다.

> 3.1. 범죄 감염 이론 관점에서의 추측

> 3.2. 디시인사이드의 익명성

> 3.3. 관심에 대한 갈망, 사회적 좌절, 정신병 치료 인식의 부재 등